

##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

9월 5~8일 순천만정원 서문광장 일원

한정된 농지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규모 재배 과정에 과다한 농약 사용 등 부작용도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최근 도시 농업이 뜨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에서도 충분히 양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텃밭 등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도시농업이 농업의 새로운 미래라고 손꼽고 있다. 순천시가 오는 9월 5일~8일 순천만정원에서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연다.

**유럽형 텃밭정원**  
체제형 주말농장의 개념을 순천시에 도입하여 순천형 정원모델을 제시.



**습지용기정원**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기를 활용하여 작은 정원을 연출.



**상생의 콩나루**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일구며 살아 숨쉬는 도시농업 녹색도시 상징.



**센트럴 키친가든**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들로 셰프들이 요리하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



# 보고 느끼고 즐기고... 텃밭정원으로 힐링여행 떠나요

나만의 한평텃밭·유럽형 텃밭 등 전시관 다양  
요리경연·꼬마농부체험에 문화공연행사 풍성  
새로운 정원문화 만끽하며 도시농업 모델 제시

◇도시농업이 뜬다=최근 직접 기른 농작물을 식탁에 올리는 'Farm to Table' 'Garden to Kitchen' 개념이 인기를 끌고 있다. 텃밭가든(채소정원)도 주목받고 있다. 정원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영국에서 시작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즐기면서' 건강해지는 치유와 힐링의 박람회이다. 도시농업박람회는 텃밭과 정원이 어우러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즐기면서' 건강해지는 치유와 힐링의 박람회이다. 도시농업박람회는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농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월 5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순천만정원과 텃밭이 어우러진 다양한 연출을 통해 농작물의 경관적 활용과 교육적 기능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형태의 박람회로 독창적인 순천형 도시 농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시로 보는 도시농업=이번 도시농업 박람회는 크게 9개의 행사 콘텐츠로 구성된다. 사회원예, 생활농업, 환경개선, 도시농업의 테마를 가지고 도시 농업의 정보와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도시농업정보관, 농촌진흥청관, 각 지자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도시농업 홍보관, 곤충 산업 소개와 체험을 위한 곤충산업관이 전시된다. 나무도감원 입구에서부터 남문광장 쪽으로 유럽형 텃밭정원, 남도문화텃밭정원, 나만의 한평텃밭 정원, 용기를 활용한 습지 용기 정원, 힐링텃밭정원 전시관이 조성된다. 꼬마농부 체험정원과 착한먹거리 체험

관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 농업의 다양한 사례와 토론을 위한 학술 행사, 도시농업 관련 경진대회, 정원 속에서 펼쳐지는 문화공연행사 등도 열린다. 도시농업 정보관은 사회원예, 생활농업, 환경개선, 도시농업의 4가지 테마를 패널과 실물로 전시한다. ◇순천형 텃밭정원도 조성=순천형 텃밭정원은 독일의 클라이가르덴을 접목해 조성할 계획이다. 클라이가르덴은 독일의 주말농장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작은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이 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공간에 작물을 심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클라이가르덴이다. ◇체험프로그램도 풍성=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곁들여진다. 3인 이상 가족이 팀으로 참여하는 텃밭요리 경연대회를 오는 9월 5일 열린다. 또 전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착한먹거리 체험관에서 두부 만들기, 콩나물 기르기, 두부쿠키, 빵빚을 러쉬, 오디초콜릿 등 허니과일빙수 매출 돌리기 체험도 진행된다. 힐링 텃밭에서는 텃밭 채소로 셰프가 요리한 음식을 시식하고 아이들이 직접 요리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꼬마농부체험정원에서는 도시농업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심어보는 프로그램도 열린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아이들이 채소도 심고 요리에 참여하는 교육장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농업 박람회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종기자@kwangju.co.kr



순천 꼬마농부체험정원에서 어린이들이 텃밭정원을 가꾸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장소인 순천만정원.

##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 현대제철 새 비전 발표

현대제철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종합소재 기반의 가치창출 기업'을 향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Engineering the Future beyond Steel)'라는 새로운 비전은 국내 최초의 철강회사로 60여 년간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현대제철의 기업정체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향후 철강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소재 기반의 가치창출 기업'을 완성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고객의 기대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가치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사 & #8231; 협력사 & #8231;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 가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우유철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비전은 지금껏 누구도 만들지 못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우리 의지의 반영"이라고 밝히며 "비전을 달성하고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날 행사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2020년 26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2025년 매출 31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미래상을 선포했다. 2020년까지 특수강 분야에서 1조5천억 원, 해의 생산설비 증대 및 해의 SSC 분야에서 2조5천억 원, 차량경량화 분야에서 1조 원, 신규제품 및 시장 확대를 통해 1조5천억 원, 이밖에 강관제품 다변화와 단조사업 효율화로 총 26조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개념을 엔지니어링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확장함으로써 유행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

다. 또한 2025년까지 매출 31조 원 규모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현재 철강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소재개념을 비철 및 비금속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은 이날 선포식에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방향으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 및 경영인프라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다. 먼저 'Application Engineering'으로 대변되는 사업전략은 고객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설계 단계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제공한다는 사업전략이다. 이는 현대제철이 기존에 자동차 분야에서 구축한 고객과의 협업모델을 건설, 조선, 에너지 등 제반 산업분야로 확장·발전시킨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기술 기반인 '지능형 플랫폼(Smart Platform)'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지향하는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으로 선진화된 경영 인프라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새롭게 창출할 소재와 서비스의 가치를 근간으로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철강업계의 총아로 떠오른 현대제철이 그려 나아갈 제 2의 도약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3월 초 각 사업장에서 선발된 직원들로 '비전경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약 4개월에 걸친 비전수립 작업을 진행해왔다. /순천=김은종기자@kwangju.co.kr

##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062)227-9600

지방지사 (061)		시내지국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지명	전화번호	지명	전화번호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영광군	351-1004	함평군	324-8111
나주시	335-5501(시·군)	화순군	374-4423
신안군	278-8111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남원시	283-1540
영암군	471-1717	장흥군	863-8822
강진군	434-6830	보성군	852-9646(보성) 857-0686(별곡)
해남군	537-6767	고흥군	842-2121
진도군	543-0100	완도군	554-6677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